

광주시, 시내버스 재정부담 '눈덩이'

2006년 준공영제 이후 올해 추정분 포함 5천500억 달해 운송원가 매년 늘고 수입 줄어...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난 2006년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올해 추정분을 포함해 5천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10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도 522억원을 기록한 데 이

어 2018년에 639억원을 기록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천818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최근의 임금 인상과 연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원금이 7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시내버스의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였다.

2007년 1천36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천510억원, 2013년 1천703억원, 2016년 1천816억원, 2017년 1천877억원, 2018년 1천964억원 등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운송원가의 68.2%

로 비중이 큰 인건비는 해마다 20~80억원씩 올라 2007년 828억원과 비교해 2018년 1천340억원으로 61.8%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시내버스 운송수입은 2013년 1천308억원, 2014년 1천296억원, 2015년 1천261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요금 인상으로 2016년 1천308억원, 2017년 1천355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지난해 1천325억원, 올해(추정치) 1천280억원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승객 수 감소 등으로 운송수입은 줄고, 적자 폭은 커지고, 결국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 최악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으로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구조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기 보다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에 공개된 광주지역 A업체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수입이익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도 당기순이익의 7.54%(4억원)를 주주에게 배당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으로 버티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임원인 소수의 주주에게 수익원의 배당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비판도 적지 않다.

갈수록 승객이 줄고 수송 분담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운송원가 중 인건비와 연료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적자가 줄지 않는 구조다"며 "감사를 비롯한 각종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상하이과학기술교류센터 협약 연계사업 발굴·중점분야 협력 모색키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 안기석)은 지난 24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중국 상하이과학기술교류센터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중 연계 사업발굴 및 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양 기관 중점분야 기술교류 협력, 한-중 과학기술인력 교류활동에 관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상하이과학기술교류센터는 1983년 중국 상하이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상하이 내의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과학기술 혁신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19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차 과학

기술진흥 포럼에 중국 상하이과학기술교류센터 국장을 국내로 초청해 성황리에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 상하이과학기술교류센터는 6월3일 개최 예정인 '국제 스마트 에너지 컨퍼런스'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초청하는 등 향후 양 기관은 한-중 과학기술인 우호관계 증진 및 연계사업 발굴에 앞장서기로 했다.

안기석 원장은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상하이과학기술교류센터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중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활발한 교류활동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며 "향후 상호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광주과학기술역량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교류활동을 전담"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차 과학

/최권범기자



북구 드론비행연습장 개장 광주 북구가 AI(인공지능), AR·VR(증강·가상현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동력으로 불리우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5일 관내 북구 대촌동에 드론비행연습장을 개장했다. 이날 문인 북구청장과 고점례 북구의회의장, 드론업체·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장식에서 드론운영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김대기자

금지사, 대규모 예타사업 해결 나서

한국개발원장 면담...해경 서부정비장 등 5건 통과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급하고 긴요한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민선 7기 도정 발전을 담보할 일부 지역 현안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하길 바라는 김 지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최정표 원장을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미 통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양경찰 서부정

비장 구축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적정성 검토 중인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등 5건을 건의했다.

특히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건설됐던 단선 비전철 그대로 남아 있고 남해안철도 순천-보성 구간의 경우 전철화 사업 선 착수가 꼭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 추진 및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또한 5년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선 시설이 오래 된 점을 감안, 여수화학산단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철도가 전철로 완공되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6시간33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대로 단축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활성화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국고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도시철도, 국제 품질관리 능력 인증

ISO 9001·14001 등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사후심사 통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1일 도시철도운영 업무에 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사후심사에 합격, 국제적인 품질관리 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윤진보 공사 사장은 "공사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랑이 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ISO 9001 및 ISO 14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평가인증 제도로, 매년 까다로운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윤진보 공사 사장은 "공사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랑이 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환경공단, 시민 대상 '에코투어' 호응

물 순환코스 돌며 환경보전 공감...교육 프로그램 지속 개발도

광주환경공단이 운영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에코투어(Eco-Tour)'가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공단은 올해 첫 에코투어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인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시 연합회' 회원 45여명과 함께 '물 순환코스'를 돌아보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 순환코스는 환경공단이 자체 개발한 코스로 주암호생태습지를 시작으로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덕남정수장, 환경공단 제1하수처리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원수부터 하수처리까지 물의 흐름과 순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올해 환경공단은 지난해 대비 100%

증대한 6회 에코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초 선착순 접수를 실시한 바 단 1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인기가 높다.

김강열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의 '환경 행복권'을 지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투어는 성인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동안 '물'과 '자원순환'이라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광주 인근의 환경명소를 둘러보고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최권범기자

2019 전국 빛고을 사진대전

[디지털]

Bitgoeul Photo Exhibition 2019



2018년 학생부 대상 - 김아현



2018년 일반 대상 - 양동훈

공모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제한없음), 학생부문(중·고 재학생)

접수기간 5월 20일(월) ~ 6월 30일(일) 까지

출품료 없음

작품주제 광주시를 대표하는 다섯가지 매력 '오매 멋지네', '오매 맛있네', '오매 즐겁네', '오매 편하네', '오매 반갑네' - '오매광주'를 잘 표현한 작품.

작품규격 FILE(스마트폰,디카) -크기:10MB/개 이하

접수방법 ce21.kr(pc) / m.ce21.kr(모바일) 1인당3점 이내

심사발표 7월 9일(화) 전국빛고을사진대전(ce21.kr)

시상일시 7월중

시상내역

일반공모 대상(1점)100만원, 최우수상(1점)50만원, 우수상(1점)30만원, 장려상(10점)100만원.

학생공모 대상(1점)50만원, 최우수상(1점)30만원, 우수상(1점)10만원, 장려상(6점)30만원.

유의사항

- 타 공모전 입·수상 작품과 표절이 인정되는 작품은 결격사유.
- 디지털합성 및 수정은 심사에서 제외됨.
- 입선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하여 도서출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 관련한 초상권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져야함.
- 제출한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주최 | C21 (Culture Economy21)
 주관 | C21 사진운영위원회
 후원 | 광주광역시, 광주매일신문
 문의 | C21 사무국 062.650.2074

